

실제 언어 생활에 도움 주는 새국어생활이 되어야

김수경 ·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학문적 목적으로 ‘국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어’는 한국인 모두에게 공기와 같이 일상적인 존재이다. 일반인의 언어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인 《새국어생활》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글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새국어생활》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학문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기 쉽지 않을까?

《새국어생활》은 ‘특집’을 통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글을 싣고, 고정란에서는 ‘어원 탐구’, ‘우리 소설, 우리말’, ‘국어 산책’ 등 일반인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싣고 있어 평소 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부담 없이 즐겨 본다. 그런데 가끔 너무 전문적인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는 《새국어생활》의 실제 독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다.

《새국어생활》은 생활 언어와 관련된 전문가의 연구 성과를 알려서 국민의 언어 생활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발행되는 국어원의 기관지이다. 그런데 국어학 학술지의 성격이 강해 국어학을 전공했거나 국어원 누리집을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새국어생활》을 알고 있다면 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인 중 《새국어생활》을 부담 없이 읽고 실제 언어

생활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론 지금까지 《새국어생활》은 알찬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새국어생활》을 통해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국어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며 실제 언어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즐겁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새국어생활》이 되기를 바란다.